



서부지방산림청, 식정119센터와 소방 합동 모의 훈련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구)은 30일 식정119인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서는 청사 내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화재 대피 훈련 및 자위소방대 조직에 따라 소화반, 대피유도반, 통보연락반, 응급처치반 등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가상화재 현장은 서부청 유아숲체험원이 불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훈련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식정119인전센터에서는 서부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준구 서부청장은 “이번 훈련으로 화재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능력과 자위소방대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식정119인전센터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사람들 서사모, 이웃돕기성금 200만원 쾌척

사람들 서신동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박종승)은 추석을 앞둔 30일 서신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200만 원을 서신동 주민센터(동장 김선중)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회원들이 옥수수를 직접 수확하고 판매해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종승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더니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중 서신동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서사모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랑 ·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

전주자봉센터, 전주를 빛낸 으뜸 봉사자 5명 선정

사랑과 나눔의 자원봉사를 실천한 전주시민 5명이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전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30일 전주시장실에서 2021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어 일반인 3명과 청소년 2명 총 5명의 자

원봉사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전주시 21만 여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 활동횟수, 봉사시간, 참여연수 등 정량평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일반인 시상자는 ▲이·미용봉사활동을 하는 헤어나눔공작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신별룡 씨(76·남) ▲전주고용센터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열 체크 및 민원

안내 봉사에 힘써온 서영빈 씨(27·남) ▲장애인 인권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봉사, 빙드(드럼) 연주 재능기부봉사에 입해 온 최광호 씨(22·남)가 선정됐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서 안전 및

소독관리 봉사활동을 펼친 강민선 씨(19·여) ▲전주문화나들이 이외 봉사 진행보조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친 조범석 씨(19·남)가 으뜸자원봉사자로 뽑혔다.

황의옥 전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난이 전주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주시의회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의원이 30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강동화 회장)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혌신·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서 의원은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복지, 환경, 경제 등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의 현안과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적극적인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서 의원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격려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역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서 의원에게 감사표현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위원장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통장연합회, 의료진 · 자원봉사자 등 위해 200만원 기탁

전주시 35개 등 통장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전주시통장연합회(회장 황혜란)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진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에 기탁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기탁된 성금을 활용해 자양강제 등이 담긴 간식 꾸러미를 만든 뒤 응원 메시지를 부착해 던진예방접종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통장연합회는 지난해 7월에도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후원하고, 지난



2019년 3월에는 노인복 지원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황혜란 전주시통장연합회장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 속에서도 봉사자의 명예를 갖고 백신 접종을 돋기 위해 나서준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통장연합회에

서는 각자 소속된 지역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에는 14개 단체에서 1일 평균 4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예진표 작성 및 접수 인원, 이동약자 지원 등을 돋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드람 FMC, 김제시에 성금1000만원 기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드람 김제FMC가 30일 코로나9 예방에 힘을 보태고자 코로나19 국복 성금 500만 원과 500만원 상당의 육기공식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도드람 김제FMC 손범석 사장 등이 함께했으며, 전달된 성금과 육기공식품은 코로나9 방역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김제시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손범석 사장은 “코로나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준배 시장은 “어려울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도드람 김제 FMC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모든 시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방역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